

북, '2·13 합의' 이행 차일피일...

정부 대북 쌀지원 딜레마

18일 경협위는 예정대로 열릴 듯

북한의 북핵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대북 쌀 지원을 논의하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의 연기론이 정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16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백중전 청와대 안보실장, 송민순 외교부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8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협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더라도 대북 쌀 차관에 합의할지 여부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해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행동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회의에서 경협

위 개최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반드시 경협위가 열린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개최 여부를 포함해 이번 경협위에 대한 입장을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를 하루 더 지켜본 뒤 17일 오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협위가 남북 간 합의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일단 무게가 실려 있는 형국이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합의된 회담을 연기하자고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다른 당국자는 "경협위를 열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더라도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담 마지막 날까지 쌀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시설 폐쇄·봉인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방북과 동시에 주기로 한 중유 5만톤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유 5만톤 지원을 위한 정유업체와의 계약이 오는 20일 끝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계약을 해지했는데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곧바로 나선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임박 시점보다 중유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언제 합의 이행에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1억원 안팎의 체선료를 내며 계약을 연장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내 탈북자 10명중 7명은 실업자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실제 근로소득 645만원 못미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10명 중 7명꼴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학)는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년 8~9월 탈북자 451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9%(306명)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구직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봤다는 탈북자가 전체의 16.2%(73명)에 그쳐 탈북자의 취업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탈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직 경로는 직업소개소(36.6%), 남남 출신 지인(25.0%), 탈북자 동료(24.4%) 등 순이었다.

탈북자들은 1주일 동안 평균 약 11시간을 구직 활동에 참여했지만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직장을 구해도 소득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보낸 기간의 88%를 실제 상태로 지냈으며 다행히 취직을 했더라도 임금이 시간당 1천560원에 불과했다.

연간 소득은 989만원이었지만 친인척이나 정부·시민단체 등이 지원한 이전소득(251만원)을 빼면 실제 근로소득은 645만원으로 2006년도 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다.

/*연합뉴스



6·25는 이랬었지 16일 오후 서울 정동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방한 중인 6·25 참전 영국군 참전용사들이 서울 영국인 학교의 '어린 이 기사단'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자단체 "새터민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16일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통일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미 '탈북자'가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명칭으로 굳어졌고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도 이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일부가 새

게 만들어낸 새터민이란 용어는 먹을 것을 찾아 새 땅을 찾는 화전민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004년 9월부터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자체 작업과 여론 조사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정,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정읍 산외면 사람들의 지혜



이종태
경제부 차장

한미 FTA 협상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축산농가가 곤궁해질 것이라는 말이 흥분하게 떠돈다.

벌써부터 산지 소값은 떨어지고, 거래조차 크게 줄어 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우울한 소식만 귀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렇다할 특산물 하나 없는 산골오지들, 그것도 2년만에 전국 최고의 '한우 마을'로 일컫던 전북 정읍시 산외면의 '변신'을 보면서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4월 초 전국이 한미 FTA로 들끓을 무렵, 산외면을 취재했다. 400m에 불과한 '한우거리'는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20여개의 식당에는 앉을 틈이 없었고, 정육점을 나오는 손님들의 손에는 큼직한 고기보따리가 들려있었다. 휴일이면 1만여명이 이 거리를 찾는다고 하니, 하루 매출 3억원을 올린다는 말이 절로 실감났다.

'한우거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축산농가와 정육점업주들로 구성된 번영회는 직거래방식을 도입, 중간마진을 없앴다. 쇠고기를 삼겹살 반값에 판매하는 '바리다매' 전략은 기막히게 맞떨어졌고, '청토우촌(靑土牛村)' 브랜드는 2년만에 전국에 알려졌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산외면은 개방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관광명소를 거듭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모색 중이다. 한우의 고품질화, 한우와 내장산 등 인근의 명소를 묶는 방안, 원장·청국장 등 특산물 개발에 대해 밤새 머리를 맞대고 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인터넷판매와 홀소프판매를 추진하고, 특히 서울·인천 등 대도시를 타깃으로 삼아 언론매체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외면의 노력은 끝이 없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단기적으로 1천781억~3천370억원, 장기적으로 1천413억~2천965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중 축산업 분야는 최대 1천8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위기의 농촌'을 구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말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촌·농업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팜스테이마을 조성이나, 1사1촌 개척사업이나 이런저런 '해법'이 유행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울곡이씨의 '10만 양병설'에 빗대 '농민 CEO 10만 양성설'까지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시대를 돌파하려는 농민들의 의지다. 산외면 사람들처럼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농업을 '먹고 즐기는(Eatertainment=Eat+Entertainment의 합성어)' 산업으로 키워내면 개방과고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jtleee@kwangju.co.kr

"북체제, 中 또는 베트남식으로 변화"

김대중 前 대통령, '르몽드'와 회견서 밝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회견에서 북한 체제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6일자에 보도된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냉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통해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개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 경제 징계조치로는 해결이 안 되고 대화만이 유일한 선택 가능성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 동중과 아프리카에서 진창에 빠져 있다. 부시의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대북정책에도 실패한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부시에게는 북핵 위기 타결이 본인의 외교적 성공을 얻기 중 공격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준다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차 북핵 위기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정

책에서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 정권 붕괴를 유발하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는 2003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 "나는 켈리의 발언에 매우 놀랐었다. 북한 대표들이 실제 가동 중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실제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회견 기사와 함께 게재한 자사 특파원의 평양 취재 기사를 통해 2·13 합의의 시행이 지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국 측과의 합의에 대해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란!

현재 광주시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본란에 나와있는 19곳 뿐입니다. 모두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이며 의사면허증 획득후 1년의 인턴생활과 대학병원급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4년간의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친후 1·2·3차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구별 방법

1. 선택한 병원 상호를 정확히 확인
 -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 → ○○○성형외과, ○○○성형외과의원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2. 병원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확인
3.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나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확인

(02)3472-4243 www.cosmeticsurgery.or.kr
(02)3472-4252 www.plasticsurgery.or.kr

■ SM美 성형외과 ☎376-4114
서구 치평동 상우타워 2층

■ 최광림 성형외과 ☎226-8575
밀리오레 건너편 TTL 건물 3층

■ 허우희 성형외과 ☎223-9595
전대병원 오거리

■ 최석현 성형외과 ☎224-9900
그랜드호텔 옆 천변쪽

■ 교 토 성형외과 ☎223-7000
무등빌딩(삼복서점) 옆

■ 권대승 성형외과 ☎224-6663
충파 맞은편 3층

■ 김영길 성형외과 ☎227-3777
무등극장앞

■ 김용직 성형외과 ☎384-7771
상무지구 BYC빌딩 3층

■ 김환익 성형외과 ☎225-9777
밀리오레건너편, 광주은행 3층

■ 류봉수 성형외과 ☎234-0009
충장로 1가입구 광일빌딩옆

■ 서현메카 성형외과 ☎232-3600
전대병원 응급실 맞은편, 그랜드호텔옆

■ 메디필 성형외과 ☎352-5252
농성동 신세계건너편, 메디필센터 2층

■ 박동균 성형외과 ☎236-3300
충장로 1가입구 3층

■ 벨 라 성형외과 ☎224-7300
남동 성당옆 웰크리닉 3층

■ 신지호 성형외과 ☎222-0222
충장로 1가입구 건너편 광일B/D 2층

■ 세 련 성형외과 ☎616-6100
충장로4가 밀리오레 9층

■ 신세계 성형외과 ☎351-1114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안과 건물 3층

■ 오형근 성형외과 ☎227-0770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 아 델 성형외과 ☎232-2046
충장로1가입구 3층 227-2046